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논하는 말씀입니다.

### 수고의 헛됨

솔로몬은 자신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과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것이 한 세대를 이어갈 수 없다는 사실에 인생의 허무를 노래합니다(18-19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 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느냐고 염려하며 고백한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의 부친과 같은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왕상 12:13-15상,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인간의 의지와 반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다른 수고의 헛됨으로써 어떤 이가 평생에 걸쳐 이 땅에서 수고하였지만 그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비록 솔로몬은 자신의 수고에 대한 열매를 최소한 그의 생애동안 누리기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처럼 어떤 이들은 한평생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만 했지만 그 열매를 누리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수고로운 삶이 그저 이 땅에서만 끝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마 6:31-32,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이 땅의 것들 즉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둘 것을 말씀합니다(마 6:33-3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골 3:2-3,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한편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사는 믿는 자들의 삶을 논하기 시작합니다(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삶이 이 땅에서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자의 삶은 삶의 모든 수고를 자기의 힘으로 얻고자 했지만 후자의 삶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26절상,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이 땅의 삶이 다른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으로만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그들은 수고만 하는 인생을 살게되고 그로인해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노력에 대한 큰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그의 지혜없는 후대가 부모에게 물려 받은 큰 재산으로 인해 타락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은 허무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삶의 수고와 열매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수고의 과정과 열매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가 얻는 부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과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분의 뜻을 위하여 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는 자들은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한국을 위한 기도: 한국의 위정자들과 정치와 경제, 국방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한국 교회와 신학교, 다음 세대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3.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김봉춘(몽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교회를 위한 기도: E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